

“40여년 공직 경험…새로운 담양 만들겠다”

이 병 노

담양군수

“민선 8기 담양군의 슬로건은 ‘새로운 담양 군민과 함께’입니다.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민생을 꼼꼼히 살피며 군민을 섬기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선 8기 담양군정을 이끌 이병노 담양군수의 최우선 가치는 ‘군민과 함께’다. 담양군정에 40년간 몸담아오다 담양군수로서의 여정을 시작한 이병노 군수의 앞으로의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농업의 미래전략사업화

현재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농촌의 노동력은 저하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담양군민의 5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하우스의 노후화 등 우리의 농업에는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같은 어려움에 대해 “현재 20%대에 머물고 있는 1,300억 원의 농업예산을 30%대로 끌어 올려 1,800억 원까지 증대하고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첨단원예단지 조성, 친환경 쌀 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기반 확충, 기후변화대응 고소득 작물 육성, 스마트형 첨단사육 시설 지원 확대, 농촌융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청년세대 정착을 위한 농업사관학교 운영, 딸기 품질 개선을 위한 우량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을 서둘러 발굴하고, 약취 없는 소규모 축산단지 조성 및 폐식용 동물 퇴비제조기를 보급해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생태인문정원도시 담양의 이미지를 살려 단순 수확·판매에 머무르는 과거형 농업이 아닌 생산·제조·가공·관광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6차 산업으로 대전환을 이뤄 부자농촌, 젊어진 농촌,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이병노 군수는 “담양군 주민복지실장을 지내며 많은 사례를 살펴봤다. 진정 어르신들을 위한 일은 나라에서도, 대형병원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고, 구수를 넘기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 시대 우리가 사는 담양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고민했다”고 전했다.

이 군수는 “여생을 보내기에 고향만한 곳이 있겠는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평생 지켜온 마을을 떠나지 않고 여생을 고향친구들과 편안히 보내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데 전력을 쏟겠다”면

농업실질소득 향상·생태계 복원

‘담양형 일자리’ 시행 경제 활성화

지역별 편차 없는 관광인프라 조성

신재생에너지 자립경제형 마을 구축

대나무산업단지 구축 경쟁력 강화



서 “자식들에게 집이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부모님 마음을 달래드리고 동시에 어르신들의 뜻을 받을 수 있는 ‘효도행정’을 연구하고, 40년 공직생활과 노부모를 가가 이 모시고 느낀 점을 토대로 실현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이를 두고 ‘향촌복지’라 이름을 붙였다”고 소개했다.

이 군수는 이와 함께 “담양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담양형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요양원 개선과 네트워크화를 통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케어 받는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겠다”면서 “보건지소나 읍면사무소는 우리 몸의 실태를 같은 조직이다. 실태를 알기 위해 팔팔 손까지 제대로 작동해야 구석구석 영양소가 전달되어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 현재 위치한 보건소를 이전하고 보건지소의 기능 강화를 통해 보다 섬세한 마을별, 권역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이 돌아오는 양질 일자리

청년이 돌아오는 담양, 젊음이 넘치는 담양을 만들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가 필수다.

이병노 군수는 후보시절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약 70%의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고 답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조속한 제2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드론, 배달로봇,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등 첨단 관련 산업 유치를 통해 담양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위해 건설한 중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창업하기 좋은 담양을 건설하면 좋은 기업들이 담양에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

또한 관내 기존 농공단지의 혁신을 통해 ‘스마트농공단지’로 탈바꿈 시켜 농업분야와 접목한 활성화 전략을 펴고,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담양의 비교우위 자원인 생태·정원 인프라를 토대로 녹색산업클러스터도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 대표 자원인 대나무가 화장품 원료나 대체 플라스틱 등 다양한 분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나무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대나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주도형 ‘담양미래교육협력센터’ 도입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더불어 사회체육시설 확충, 중년의 삶 케어를 위한 쉼터 조성 등 같은 ‘건강 담양’을 위한 사회 시스템도 마련해 살고 싶은 담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양군이 십수년간 구축해 온 친환경생태도시 이미지와 함께 광주대도시 근교권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은 충분한 성장동력”이라며 “40년 행정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려 새로운 담양의 경제 대전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정주여건·생활 인프라 개선

읍면지역이 동반성장하고 균형발전해야 군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주여건 개선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은 필수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로 정비와 저지대 수해대비시설을 조성하고 취약했던 광주-대전-수북-담양을 간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면서 제2상수원 확보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통해 불편함이 없는 생활 인프라를 조성할 계

획이다. 더불어 마을형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자립경제형 마을 구축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도문화 관광도시’ 실현

담양이 가진 경관자원을 활용한 체험·휴식 관광인프라를 조성해 관광의 6차 산업화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같은 배경 아래 이병노 군수는 국수거리, 메타프로방스에 야간테마 관광거리를 조성하고 야시장 개설, 농어촌민박과 카라반, 펜션과 같은 숙박시설의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체험형 관광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며 담양다운 원림문화 벨트를 조성하고, 읍면지역에 따라 특색 있는 감성요인을 개발해 담양 전역을 감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포용적 공감행정 구현

행복한 담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지역민이 함께 해야 하고, 세대가 함께 해야 하고, 계층이 함께해야 한다는 게 이병노 군수의 평소 철학이자 소신이다.

이에 따라 상시 사랑방 좌담회, 현장 간부회의 확대, SNS를 통한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민들의 여론을 상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하향식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이와 함께 군민이 필요한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고, 행정은 이를 이행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읍면의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확대해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연합회에도 예산참여권을 보장해 군민이 군정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 군수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한 사람이 걷는 100걸음보다 100사람이 걷는 한 걸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느리더라도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직생활 40년에 얻은 경험과 지혜를 담양발전과 군민행복 위해 쏟겠다”며 “민선 8기 공약사항이 반드시 지켜져 더 새로운 담양을 만들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주요 공약

▲첨단원예시설 적극 지원 농업실질 소득 향상과 농업생태계 복원 ▲전세대 아우르는 ‘담양형 돌봄시스템’ 안정된 삶 구현하는 ‘향촌복지’ 구축 ▲합리적이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생활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최소화 ▲제2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 ▲‘담양형 일자리’ 시행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료시스템 강화로 군민건강 체계적·선제적 관리 ▲신재생에너지 통한 자립경제형 마을 구축 ▲12개 읍·면 특성화 통한 정월문화 구축 지역별 편차 없는 관광인프라 조성 ▲읍면 사무소의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 독창적인 주민 자치형 행정체계 확립

이병노가 걸어온 길

▲담양군 농식품유통사업소장, 금성면장, 투자유치단장, 지역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자치혁신국장 ▲한국저널리스트대학 평생교육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담양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이병노 담양농비전연구소장 ▲자치분권포럼 담양군지부장 ▲‘1004클럽’ 담양군지회장

(왼쪽부터)
▶이병노 군수가 최근 2022년 10대 브랜드 쌀 시상식에 참석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병노 군수가 최근 기업유치를 위해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병노 군수가 위생교육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